

2018 새해 새 설계

김상열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3대 벨리 관련 기업 유치 본격 활동”

〈車·에너지·문화콘텐츠〉

4차산업혁명 대비 포럼·컨설팅 개최
지역기업 경영 지원·사업 발굴
경영·인사·세무 실무교육 강화
정부·지자체 수입사업 확대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지역이 미래 신산업 중추도시로 나아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김상열(57)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며 “지역 산업과 경제혁신,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성장을 지속해 확실한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4차산업 혁명시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 전개 ▲회원 및 지역기업의 경영지원 확대 ▲정부·지자체 수입사업 확대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 지속추진 등을 꼽았다.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절대적이라는 김 회장은 “지난해 말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시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이 참여해 ‘3대 벨리 기업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올해는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전환경제동차·에너지·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유치를 반드시 완수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에 지역 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포럼과 컨설팅 등 역량제고를 위한 사업을 새롭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상의 위상정립과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한 회원 기업 서비스 확대와 경영활동 지원에



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경제단체로서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경영과 인사, 세무·회계 등 실무중심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사전 조사에 적기에 실시하고 각종 경제포럼과 세미나, 설명회를 개최해 최신 경제동향을 회원사의 요구에 맞게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그는 이어 “회원의 유대강화를 위해 회원사 금융지원사업과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등을 활성화하고 기업혁신대상, 한국유통대상 등 포상추천, 회원기업 임직원 초청 영화관람 행사 등 다양하게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지역인재의 역외유출로 소외와 낙후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는 김 회장은 “기업인들이 출신 수범해 지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우리 기업인들은 산업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앞에 피나는 자구노력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지원 기관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도 정부와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중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과 지역혁신 프로젝트, 근로조건개선 지원사업, 광주지역 FTA활용지원센터 등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역기업의 경영지원을 확대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해 종합경제단체로서의 위상제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당장 3월로 다가온 차기 회장선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차기 회장 선출방식이 ‘합의추대’로 돼야 한다는데는 생각의 변화가 없었다.

최근 불거진 ‘차기 회장 추대 투표 논란’과 관련 “선거 과열로 지역 상공인 양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지를 모으자는 차원에서 실시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정관 개정으로 투표권 배정이 합리화됐고 의원 수도 늘어난 만큼 선거관리에 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보성 출신으로 2015년 제49회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과 2015년 통합경영학회 창조경영자상을 수상했으며 호반건설 회장과 KBC광주방송 회장, 호반장학재단 이사장,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66.46 (-19.89) ↑ 금리 (국고채 3년) 2.14% (+0.02)
- ↓ 코스닥 808.01 (-14.30) ↓ 환율 (USD) 1062.20원 (-2.30)

효성 ‘지주회사’ 전환

4개 사업회사 분할...경영 효율성·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효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경영 효율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꾀하고 있다.

(주)효성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을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효성은 투자를 담당할 존속법인인 지주회사와 분할회사인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 등 4개 사업회사로 나뉘게 된다. 지주회사인 (주)효성은 자회사의 지분관리 및 투자를 담당하게 된다.

효성티앤씨(주)는 섬유·무연 부문, 효성중공업(주)는 중공업과 건설 부문, 효성첨단소재(주)는 산업자재 부문, 효성화학(주)는 화학 부문을 각각 맡게 된다.

국내외 계열사의 경우 신설회사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계열사 주식은 해당 신설회사로 승계되고 나머지는 (주)효성에 존속된다.

효성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효성T&C, 효성물산, 효성생활산

업, 효성중공업 등 주력 4사를 합병한 바 있다. 이후 20여년간 섬유, 산업자재, 중공업 부문 등 4개 사업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회사분할로 분할 존속회사인 (주)효성은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할회사들은 이미 사업부문별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만큼 독립경영체제가 구축되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사업부문별 전문성과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경영효율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효성은 오는 4월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분할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가결되면 6월1일자로 회사분할이 진행된다. 신설 분할회사들에 대한 인수장 계약 예정일은 7월13일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심으면 보조금

쌀 공급과잉 해소 위해 생산조정제 도입...올 예산 1708억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발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재배 면적 감축은 폭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혀 왔다. 이번 생산조정제 실시로 벼 재배 면적 5만ha가 감축된다. 2017년산 쌀 변동작물금 수령 농지가 사업 대상이다.

지원 단가는 ha당 평균 340만원으로, 쌀 소득과의 차이, 영농 편의성 등 품목군별 특성에 따라 단가는 차등화된다. 이에 따른 올해 사업 예산 규모는 1708억원이다.

대상 품목은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등을 제외한 1년생·다년생 작물이다.

논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 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올해 11월 중 지급된다.

당국은 지역특화 작물 등을 중심으로 재배를 유도해 다른 작물 생산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 농협, 식품업체 등과 계약재배 확대, 군대·학교 등 공공급식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시·도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해 기술 지원과 종자 확보 등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자급률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2016~2017년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으로 총 3만5000여ha의 논에 타작물 재배를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떡국나눔’

30여명 여수장애인복지관 봉사활동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4일 송중욱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지역사랑봉사단 30여명이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신년맞이 떡국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앞서 송중욱 은행장은 천중근 여수시장에인종합복지관장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복지관을 찾은 장애인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떡국과 새해 선물을 드리고 배식봉사와 설거지, 환경정화 활동 등을 펼쳤다.

송중욱 은행장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은 ‘나와 지역을 잘 아는 우리 모두의 은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지역과 공생·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신년을 맞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떡국나눔’ 배식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필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매매 - 협의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4200만원

비금도,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 분할매매가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토지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1억 600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가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